

지역지리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갖는 교육적 함의

박선희(광양고등학교)

《요 약》

본 논문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논의가 지역지리교육에서 갖는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고 지역지리교육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의 실정,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 등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역학습은 지역사회의 제사실과 현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은 학교교육을 통한 학습과 일상의 경험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이고 배운 지식을 일상경험과 적절히 연계시키지 못하는 인식론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지리교육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한다는 내용과 부합된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의 고유성과 변화를 역사지리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설계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육과정의 지역화, 지역지리교육, 일상경험, 역사지리적 접근

I. 서 론

최근에 사회과학 일반에서는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연구는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생존을 공고히 한다는 정치적 동기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 활성화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면서 정부, 기업, 단체에서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지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 현장에도 반영되어 학생들의 일상경험 경험 속에서 지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

시되고 있어 최근 지리학계와 지리교육계에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지역지리교육은 지방자치제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교육과정속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지리교육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가 지역지리교육에서 갖는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고 지역지리교육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의 교육과정 지역화 논의속에서 지역학습의 의미를 살펴 본다. 둘째, 지리교육에서 지역의 의미와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갖는 교육적 함의를 모색한다. 셋째, 전주지역을 사례로 일상경험속에서의 지역 학습과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II.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국가수준에서 의도하는 교육과정과 지역수준인 학교에서 전개한 교육과정간의 간격을 가능한 줄이고, 양자간의 관계를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의 실정,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 등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신성기, 1991).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대두된 것은 1960년대 전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균형된 지역발전에 따른 수도 및 대도시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시정해 보려는 지방개발의 강조,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되어온 전통문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되살려 보려는 지방 문화 개발의지 등에 기인한다(이명길, 2002).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과 관련된 교과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 지역의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과이다. 일반사회과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실시 에 힘입어 교육의 지역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혁풍(1995)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학습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다고 본다. 지역화=지역학습이라는 인식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화는 지역학습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지역 연구를 통하여 수업하려는 시도는 역사교육에서도 활발하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역사교육에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 지역사 교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의미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될 뿐 아니라 사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 연구의 불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향토는 하나의 지역사회이다. 향토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이며 향토의 주민들이 공통된 생활에

참여하고 향토에라는 사회감정으로써 상호 접촉하고 있는 공통적 사회인 것이다. 애정이 깃든 용어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할 때는 지역의 개념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¹⁾

유승광(2000)에 의하면 역사교육에서 지역사는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하며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한 역사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켜 주고 사실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해석·종합·통찰의 능력과 태도를 길러준다. 역사교육의 지역학습은 사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게 하며 학문적 접근 방법을 체득하게 해 주며, 향토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접근은 수동적인 과목에서 능동적인 과목으로 바꾸어 놓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상 지역 학습은 새로운 역사교육의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지역의 역사적 접근이 교재로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하는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역사학계와 향토사가들에 의하여 발굴된 자료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사 수업 시간의 동기 유발, 국사와 관련한 자기 고장 역사 소개, 특별 활동의 향토 답사, 특기 적성 교육의 향토 탐구, 수행 평가를 통한 지역사 조사학습, 현장 학습 등은 학생들의 조사연구와 역사서술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참여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촉구할 수 있다.

Ⅲ. 지역지리교육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육과정 지역화와 관련하여 일반사회과와 역사교육 분야의 논의에서 보면 지역화란 지역학습이라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 지역학습은 일반사회와 역사교육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지역학습은 지리교육의 고유한 영역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속에서 지리교육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교과이다. 본 장에서는 지리교육에서의 지역학습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와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지리교육의 지역학습

지역이란 지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지리교육에서도 전통적이면서 기본적인

1) 일반적으로 향토사는 향토를 향토로 기술하는 것이고 지방사를 향토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본다. 지역사는 향토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하나의 작은 단위로 본다(유승광, 2000, “향토사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제5호, 태진사학회, p. 169). 지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향토, 지역사회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각 학문적 입장에 따라 접근 방법과 교수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삼가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단, 다른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개념이다²⁾. 기본적인 개념이란 교과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지리교육에서 지역이란 지리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교과에서 지역을 학습하는 것은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며 이러한 지역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리적 사상(事象)들을 지역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논리를 이해할 때에 가능하다. 지역을 인식한다는 의미는 지역을 구성하는 개별 현상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다양한 현상들을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뜻이다(권정화, 1997).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리교육에서 지역지리의 경우, 개념과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해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교사들은 지역지리의 경우에 지식의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고 간주하며,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서는 어떤 식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수업설계를 할 지에 대해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다. 초·중·고 학령단계 별로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지역 특징의 서술방식이 표피적이어서 지역정보를 단순히 묘사하는 백과사전식 나열을 답습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서찬기, 1991).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지리교육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지리교육에서 지역을 가변적이고 유연적인 변화체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서 구성해야 한다. 지역 요소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 공간 잠식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는가, 즉 변화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추가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이영민, 1997). 지역은 고유성을 가진다는 것, 지역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변화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손병철, 1995). 지역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지역변화를 역사지리적 접근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특정지역이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고유성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 내는가라는 내용은 지역지리교육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은 지역 변화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므로 지역지리교육의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

지역지리교육은 지역을 역동적으로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일상경험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역지리교육은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 많은 장소와 경관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공간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개념과 아이디어일지라도 학생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세계와 일상경험의 현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식론적 장애에 시달리게 된

2) 미국의 경우 입지(location), 장소(place), 장소내의 관계(relationships within places), 이동(movement), 지역(region)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1984,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pp. 3-8; 서태일, 1993, 지리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p. 49에서 재인용.)

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한 학습과 일상의 경험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이고, 배운 지식을 일상경험과 적절히 연계시키지 못하는 인식론적인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학습자의 실제 삶의 장소를 교육의 범주 안으로 들여 놓음으로써 학교안에서의 교육내용과 밖에서의 일상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좁혀야 한다(전중환, 2002). 일반화된 개념과 이론에 대응하는 사례제시에서, 일반화된 전체적인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성격을 갖는 자료'를 활용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는 대부분 부분의 집합체를 일반화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일상경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을, 그 '부분적'인 속성을 그대로 살려서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류재명, 2002). 이는 지리교육에서 학습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보다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정화는 '공적 지리'와 '사적 지리'와의 관계로 언급한다. 지역지리교육이란 지리학자들의 지식체계인 공적지리와 학생들의 주관적 경험인 사적 지리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남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것과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³⁾ 이는 지리적 인식의 결과로서 얻어진 추상화된 형식의 지식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속으로 되던져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학생 주변의 생활사로 직접 재구성하거나 이와 대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으로 구성하게끔 시도한다는 점이다. 일상경험과의 관련속에서 지역을 접근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주관적 경험이 지리학의 개념 및 방법들과의 접촉을 통해 세련되고 확장되고 풍요롭게 되면서 지역지리교육이 추구하는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본다.

2. 지역지리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갖는 의미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는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최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아 온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세계화에 부응한 지방화, 지역화의 의의가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⁴⁾ 교육과정을

3) 학생들의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성찰속에서 인지적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속에서 지역지리교육의 내용구성의 원리로서 생활사를 제안한다(권정화, 1997, pp. 67-68).

4) 남상준은 사회과 교육이나 지리교육내에서 지역화와 그것의 구체물로서의 지역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지역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교과서의 교수와 학습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역화할 것이며, 무엇을 지역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간적 범위를 단위로 하여 지역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소홀히 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과가 의도하는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사회현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정병기 외, 1995). 이병걸은 지역화 학습이 지역사회의 세사실과 현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이 지역화 안을 가지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민게 되는 경험과 그 결과로서 얻어진 이해는 지역 사회일원으로서의 긍지와 자선 그리고 애향심을 길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적 사실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여 개개인이 사회적 사실과 현상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사회생활의 원칙을 발견하여 스스로의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며, 그 의미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이병걸, 2002).

교육부가 편찬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는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전략을 지향하며, 학교의 실정에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사회과는 학습자의 성장 발달과 그들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주안점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교육부, 1997). 이러한 내용들은 일상경험과 각 지역 속에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사회과 과정의 교장의 모습과 생활, 4학년 지역사회, 7학년 지역과 사회탐구, 10학년 국토와 지리 정보 등은 교육내용의 지역화를 담아낼 수 있는 단원이고 기타 내용에서도 사례지역으로 지역사회를 다룰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수·학습방법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일상경험이나 경험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지역의 연구자료, 지역주민과의 면담내용, 사진·슬라이드 등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을 전개시킴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화추세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화 자료를 준비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여 강의적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항목으로 지리가 담당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리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습자의 실제 삶의 장소를 교육의 범주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교육 내용과 밖에서의 일상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지역에 대한 학습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응한다는 거시적 측면 이외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장소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모학문에서 개발된 지리적 개념과 원리들을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리적 상상력을 크게 신장시켜줄 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사회과탐구]교과서의 내용은 지역을 정태적이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형식지역, 동질지역의 시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교육을 시도하려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p.264).

있다(진종한, 2002).

지역학습에 있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을 직접 학습함으로써 지역의 시사성, 역동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지역지리교육에서 나타난 지역의 백과사전식 나열이나 정태적인 접근과 같은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경험에 기초한 접근과 역사지리적 접근의 접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일상경험에 기초한 지역학습은 학교에서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편 교육과정'에서 교육실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습의 능동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리를 한다는 것은 개별 지리적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며, 데이터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에서는 개념, 이론, 그리고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수업에서는 해당학급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특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인식론적 장애를 줄이고, 텍스트에서 다루는 일반론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류재명, 2002).

지역화 교육으로서 지역학습은 그 지역의 형성과 성장, 발전 등의 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지역학습은 학생에게 그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며, 현재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의 미래를 보다 바람직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고려한 지역학습은 지역 사회일원으로서의 당지와 자질 그리고 애향심을 길러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은 그 지역사회의 기원과 성장, 발전,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는 교육이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체현상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는 바 역사지리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유송광, 2000). 지역학습은 지역의 역사에 뿌리를 둔 지역성에 대한 교육이며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리 교육 내용 조직에 유용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변화성과 다양성, 학생의 실태, 학교 또는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과 교원과 주변의 요구와 필요성,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학습 문제의 설정, 단원의 구성, 내용의 배열, 학습 방법의 개선과 탐색, 자료의 개발과 활용 등의 제조정을 통해 학습내용을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학습단원을 제조직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많은 난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왜

꼭되어 지향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역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역사교과중심으로 지역의 과거에만 매몰되어 현재의 역동성을 담지 못한 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너무 매몰되어 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지역학습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법칙의 탐구가 결여될 수 있는 점, 세계화 시대에 자기 지역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편협성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난점은 지역화에 근거한 지역학습은 지리교육과정에서 계열적 조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하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관찰에서의 주밍(zooming)에는 넓은 지역을 멀리서 보기, 좁은 지역 확대해서 보기, 사례지역 다시 확대해서 보기가 있다(류재명, 1998). 초등학교에서는 주밍의 폭을 적게 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주밍의 폭을 넓혀야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지역학습은 주밍의 폭을 적게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지역의 스케일을 다양화하여 세계라는 스케일에서부터 대륙, 국가, 지방, 그리고 작게는 마을 단위 등의 스케일에서 지역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게 조직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점차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지역을 소지역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제의 구체성과 정밀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학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성과 보편성, 특수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전주지역을 사례로 한 지역학습

가. 사례지역 개관

본 논문에서 전주지역을 사례로 하는 이유는 지역의 정체성과 변화를 일상경험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주는 전통적인 도시로서 해방 후 급격하게 변화된 대도시와는 달리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생활속에서 전통적인 공간을 찾을 수 있고 대도시만큼 크지 않아 지역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규모의 취락과 달리 전라북도 행정중심지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지역의 변화 또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주는 조선시대 행정중심지로서 감영과 부영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하여 조선후기 대표적 시장이었다. 전주는 1907년 전주-군산간 도로 개설작업이 시작되면서 성곽이 철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주에서의 성곽철거는 조선왕조의 권위와 전통사회의 붕괴였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의 시점이기도 하였다. 풍남문만을 제외하고 동, 서, 북문이 모두 파괴되었고 조선왕조의 권위를 상징했던 관아건물은 파괴되어 전주의 명물 객사만 남게 되었다. 일제의 고건축물의 의도적 파괴와 일본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토지 점유과정 등은 모두 식민지화 과정이었다.

성곽철거 후 일본인의 전주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주로 서문을 중심으로 이주하면서 대정통(현재 중앙로)에 상가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상업공간은 조선인의 전통적 상

업공간이었던 남문시장과와 일본인의 상업공간인 대정동으로 민족별 격리가 나타났었다.

해방 후 전주의 발전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용하게 변화되면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시공간적 맥락을 남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과거 조선왕조 권위를 상징했던 객사, 경기전 등이 전주의 상징물이며, 풍남문은 서민의 상업공간인 남문시장을 대표하는 곳으로, 중앙로는 현재 전주 도심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존재한다.

전주에서 개항기 때 또는 일제 때 사진에 많이 등장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경관은 풍남문, 객사, 경기전, 대정정거리, 전주천 등이고 최근에는 풍남문, 한옥지구가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김한배, 1998). 이규목의 전주시민들의 전주 인지도 분석에 의하면, 풍남문과 객사, 경기전, 중앙동의 시가지 등이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역사적인 상징물이나 경관이 도시 이미지 구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이규목, 2002). 특히 객사는 전주 도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전주의 대표적인 도로로는 팔달로와 충경로(동서관동로)가 가장 우세하게 인지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변화가었던 중앙로와 남문(현재 시청에서 풍남문과 연결된 도로)에 대한 인지는 매우 미약하였다. 팔달로와 충경로는 해방후 전주 변화를 남아내는 공간인 반면 중앙로와 남문로는 서울의 소공로와 같은 존재이다.⁵⁾ 팔달로와 충경로의 교차점인 객사주변은 풍남문과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결절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의 접목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학습

일상경험에 기초한 지역학습은 학생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의 양식들을 번역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학생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각 지역 사람들의 경험속에서의 경관, 지역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각종 표상, 지역의 상징물들을 통하여 지역학습을 접근할 수 있다(박승규·심광택, 1999). 상징물이나 경관, 표상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역이 형성되고 변화된 시공간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상징물이나 경관 등을 단서로 하여 지역학습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일상경험에 기초한 접근임과 동시에 지역의 역사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지역학습에서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적 접근의 접목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적 접근이 녹아든 지역학습의 가능성은 일상경험을 구성하는 시-공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박승규는 일상경험을 구성하는 공간성은 시간성을 압축하고 있고 각각의 지역들에서는 다양한 역사적인 의미의 지층들이 존재하게 되며, 이들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노두(outcrop)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박승규, 2000).

5) 서울의 '소공로'는 대평로와 남대문로 사이에 미스듬한 길로서 함방전후부터 소공로가 개설되기까지 소공동에 각종은행과 백화점이 입지하면서 일본인의 경제적 지배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해방후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이유도 없는 이정정한 길이 되어 버렸다(강홍민, 1998, "근대화의 도시풍경: '신주작대로'기행,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도시문』, 서울: 박영사, pp.188-193).

지리교사는 역사적인 의미의 지층들을 인식할 수 있는 노동들을 단서로 지역학습을 접근할 수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정체성과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많은 노동들을 단서로 지역학습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라는 공간속에 존재하는 '남문시장'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결국 세가지의 역사적인 지층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지층, 일제강점기의 지층, 그리고 근대화속에서 형성된 지층이다. 역사적인 지층들의 두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때 가장 두꺼운 의미의 지층은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 곳에 존재하는 여러 정관이나 건물은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한다.

전주의 '도정'은 조선시대 행정기능의 중심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통치기구로 의미화되며, '서문'은 일본의 진출요지로서, '대정동'은 일본상인의 상업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도정'은 전라북도 행정 중심지로서, '중앙로(일제강점기 때 대정동)'는 전주의 중심업무지구로서 의미화된다. 이러한 경관들은 전주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상징인 것이며, 그러한 경관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⁶⁾ 이렇듯 전주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진제로서의 역사성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전주사람들의 경험의 퇴적물이며 전주라는 지역에서의 지리적인 현상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다양한 단서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지리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일상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지리적 경험세계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박승규, 2000). 이런 의미에서 지역지리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의 고유성과 변화를 역사지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사는 지역의 변화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시기와 주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삶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학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의 접목은 경제지리분야의 지리교육에서도 가능하다. 조성옥은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방법의 대안으로 지역문제 중심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역문제 중심방법은 경제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학습의 가치가 있고 설명력이 높은 지역 또는 지역문제를 선정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조성옥, 2000). 이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의 학습에 머물지 않고 가치판단, 의사결정능력, 실생활에서의 적용 능력 등 고등기능의 학습이 가능하며, 실생활의 다

6)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은 끊임없이 그 사회적 정당성을 지역의 현재적 요구라는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을 객관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는 역사경관도 변화하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그 물리적 형태, 기능, 의미가 변화하면서 선택적으로 보존, 유지, 생성되게 된다. 전주의 경우 경기전, 조정묘의 복원사업, 객사복원사업, 서문, 복문, 동문 승강장 건립, 한옥보존지구등을 통해 전통도시로서 지역정체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활동이 있다(심승희, 1995, "역사경관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전주의 한옥 보존 지구와 역사경관을 사례로," 『지리교육논집』 제33집, p. 44).

양한 문제를 경제지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본 논문의 지역학습에 적용이 가능하다. 경제지리에서 역사지리적 접근은 경제지리교육의 중요개념인 분포, 상호작용, 입지, 변화, 환경 중 변화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인간의 경제활동과 산업의 변화, 교통 조건의 변화 등인데, 전주지역학습은 전주지역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전주지역의 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라는 주제로 경제지리적 내용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풍남문' 주변의 전통적인 정기시장, 일제강점기 일본상인의 상업공간이었던 '대정통', 해방후 중심업무지구를 대표하는 객사 앞 충정로 등을 단서로 경제적 변화를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에 응용하여 그들의 일상적 삶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적 접근의 접목은 지역문화활성화라는 고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개발전략으로 각종 지역축제의 개발,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 등 지역자료관에서의 지역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에서는 전주를 상징하는 풍남문을 모태로 한 풍남제, 전주시약령제전, 전주송이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통문화특구지역조성, 전주역사박물관의 시민교육강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한 축제나 활동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의미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학습해 볼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리,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으로 특별활동, 행사교육, 일상교육 활동을 통한 지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행사교육을 통한 지도는 소풍, 수학여행을 이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로서는 지역연구반, 향토반 등의 클럽활동을 조직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신성기, 1991).

이대건은 지리학습은 직접 경험을 위한 현지학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일제 특별활동 향토조사반을 운영하면서 현지학습을 통한 지역학습을 실시하였다(이대건, 2002). 현지학습이란 야외에서 여러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 종합하는 일로 사회과 학습의 주요한 학습방법이다. 특히, 공간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리학습에는 매우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다. 현지학습의 효과는 사회현상을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생활경험이나 시야를 넓히며 사회현상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여러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올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현지학습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자주적인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클럽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현재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의 미래를 보다 바람직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주지역 사례와 같이 특정공간 '남문시장', '시청', '풍남문' 등을 단서로 접근하여 볼 수 있다.

클럽활동을 통한 지역지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일원으로서의 긍지와 자질

그리고 애항심을 기르게 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별 지리적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며, 데이터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게끔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일상경험이나 경험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지역 연구 자료, 지역 주민과의 면담내용, 사진, 슬라이드 등을 구성하도록 지도한다.

IV. 결 론

최근 '과거의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함께 그리고 역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리학, 역사학, 도시행정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활성화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내고장 의미 찾기', '참모습 알기' 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문화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문화 발굴, 문화 공간 설립, 축제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기원과 성장, 발전, 변화등을 살피는 역사지리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고 지리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고유성'과 '변화'를 동시에 담아내면서 지금까지 발달해 왔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와 변화를 가져왔던 일제강점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는 '내고장 의미 찾기', '참모습알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 문화 육성은 지방자치 뿐 아니라 교육자치에도 영향을 주어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대두된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학습자의 일상경험 속에서 학습소재를 찾아 학습의 능동성을 확장하고, 지식세계와 일상경험 사이의 인식론적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지리교육내용을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하여 구성함으로써 일상경험속의 지리와 지역의 정체성 함양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지역지리교육의 역사지리적 접근은 답사, 특별활동에 의해 강화될 수 있고, 한국지리와 경제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경험의 질적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성, 주관적 경험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리수업시간에 어느 지역을 방문했던 개인의 경험, 느낌, 장소의 의미(역사-해석적 지식)를 학습자가 직접 해석하여 그 지역 주민의 얼굴을 읽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심광택·김일기, 1997). 질적 탐구 방법으로 감정, 민족지, 역사, 해석학, 허구, 문학, 비평, 미술 등 많은 형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지리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리라고 본다(V. Leo Bartlett, 1999).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지역화속에서 지역을 학습하는 것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의 지역학습과 어떤 차

이가 있고 학습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둘째, 일상경험과 역사지리의 접목을 통한 지역학습을 담아내려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이 미약하다. 역사지리적 접근은 역사와의 통합이론 논의속에서 좀 더 치밀하게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상경험과 관련된 학습 논의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적 수준에서 재조직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수업모형과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지역학습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담아내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김한배(1998). 「우리도시의 얼굴찾기」. 태림문화사.
-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이규복(2002).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 정병기 외(1995). 「사회과교육론」. 교육출판사.
- 강홍빈(1998). 근대화의 도시풍경: '신주작대로'기행,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도시론」. 박영사. 188-193
- 권정화(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혁풍(1995). 「지역화 논리에 따른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 Bartlett, V. L(1999). 나의 마음을 살펴보라: 지리교수에서의 질적탐구 학습방법. John Fien 외, 이경한 옮김, 「열린 지리수업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05-129.
- 박승규(2000). 「일상경험에 근거한 지리교과 재개념화」. 박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 박승규 · 심광택(1999). '경관'과 '기호'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8.
- 서태열(1993). 「지리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찬기(1997). 제7차 교육과정 지리교과 내용구성에 관한 제언. 「대한지리학회지」. 54, 1-7.
- 손명철(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심승희(1995). 역사경관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전주의 한옥 보존 지구와 역사경관을 사례로. 「지리교육논집」. 33, 43-73.
- 류재명(1998).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방안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6(2), 1-18.
- 류재명(2002). 도시지리교육에서의 학습활동 개발에 관한 소론. 「지리과교육」. 4, 한국교원대학교, 19-24.
- 신성기(1991).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1-42.
- 심광택 · 김일기(1997). 지식의 유형에 근거한 지리과 수업방법의 실제. 「대한지리학회지」. 32(2), 197-215.

- 유승광(2000). 향토사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5, 태진사학회, 169-192.
- 이대진(2002). 특별활동을 통한 고등학교 학국지리 교수-학습방법 연구. 「강원지리」. 19, 315-337.
- 이병걸(2002).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지역화 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지리」. 19, 107-130.
- 이영민(1997). 문화역사지리학연구의 최근 동향과 지리교육적 함의. 「지리환경교육」. 5(1), 27-40.
- 전종환(2002). 「농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지역화과정-14~19세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 조성욱(2000). 「고등학교 경제지리교육 내용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논문접수 : 2003년 4월 10일/ 수정본 접수 : 2003년 5월 13일/ 게재승인 : 2003년 5월 30일

Abstract

Educational implication on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in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Sun-hee Park(Kwang Yang High school)

This paper will grope for educational implication on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in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and consider how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apply to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is activity that curriculum in national level is reorganized into regional level under consideration on community, school, learner and so on.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is important interest on geographic educationthat have basic concept of region. It is possible for student that learn voluntarily because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is learning on region that is very concrete and familiar to student. This paper suggest that way of learning on community is historical geographic approach which made up of the past amd the present of learners region. Learning on community can reduce the gap of learning and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Key Words : regionalisation of curriculum, regioanal geographic education, everyday experience, historic approach